

17세기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문헌적 고찰

- 여성 대상 傳狀文·碑誌文을 중심으로

이 경 하*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규범서·역사서의 읽기와 번역 |
| II. 일상적 글쓰기: 편지 | V. 맺음말 |
| III. 비밀상적 글쓰기: 유서와 제문·행록 | |

I. 머리말

17세기는 조선사회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과도기로서 자연히 양면성이 공존하는 시기다. 여성사적으로 보면, 성리학적 이념이 강화되면서 혼인제도와 상·제례가 변화하고 여성에 대한 규제가 재정비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전에 비해 여성에 관한 기록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사회에서 딸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평범하게 살다간 일반 여성의 삶이 기록으로 남게 될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죽음을 계기로 지어지는 행장, 묘지명, 제문 등을 통해, 실재했던 여성들의 행적이 보다 많이 역사화

* 서울대학교 강사

될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 여성문학 및 여성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폭되어 왔으나 전통사회 여성들의 ‘어문생활’¹⁾에 관한 정보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국여성어문생활사 연구는 그동안 버려둔 자료들을 수합하여 과거 여성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는 기초적인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출발점의 하나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장류·비지류·애제류 산문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여성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작자의 슬픔을 토로하는 데 기울기 쉬운 제문보다는 행장이나 묘지문에서 보다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글쓰기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전 자료에만 의거하여 당시 여성의 어문생활상을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 예컨대 『병자일기』나 『규곤시의방』 같은 자료가 17세기 여성의 국문글쓰기로서 얼마나 보편적면서 특수한 것이었는지, 다른 방증자료가 없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인간의 경우 현전하는 왕실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편지쓰기가 당시 일반 여성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때문에 문헌상의 단 몇 줄 기록이라도 더 찾아서 당시 여성들의 문자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현전 자료의 희소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전통사회 여성어문생활의 실제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7세기 상층남성문인들에 의해 씌어진 여성 대상 비지류·전장류 산문을 검토하여, 우선 당대 상층여성들의 국문생활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중세 남성지배질서의 이념과 가치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이다. 이 자료들이 제공하는 여성 관련 정보들은 말하자면 교묘하게 포장된 사실이다. 때로는 기록된 것 이면을 읽어야 하고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이 없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

1) 어문생활이란, 기존의 문학 개념이 전통사회의 여성문학사를 재현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언어문자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어문생활의 관점 및 한국여성문학사의 연구경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로 검토하여 중세 상층여성의 국문생활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²⁾

필자가 검토한 자료는 『한국문집총간』에서 1600~1680년 사이에 태어난 작가의 문집에 실린 글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장류·비지류 산문들이다. 정양(1600-1668)에서 박필주(1680-1748)에 이르기까지, 해당 작가는 모두 108명이다. 이들의 개인문집에 실려 있는 여성 대상의 전장문은 90여 편, 비지문은 350여 편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고 해서 모든 비지문과 전장문에 해당 여성의 어문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여기서 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편린들을 수합하여 정리할 것이다. 전장문과 비지문 외에 애제류인 제문에서도 간혹 어문생활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를 논의에 포함하기로 한다.

II. 일상적 글쓰기 : 편지

□ 왕조실록을 통해서 볼 때, 국문편지는 15세기말에 이미 여성들 사이에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³⁾ 16세기 후반에는 정철의 어머니 죽산안씨가 시묘살이를 하는 두 아들에게 써 보냈던 언간, 채무이의 아내 순천김씨와 그 가족친지들이 주고받았던 언간 등이 남아 있어,⁴⁾ 당시 국문편지가 생

2) 17세기 여성 대상 비지류·전장류·애제류 산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강혜선, 「아버지의 글로 남은 딸의 삶: 김창협과 그 딸 雲」, 『문헌과 해석』 19, 2002 여름 ;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30, 2002 ;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003 ; 고연희, 「김창협: 여성재현의 틀, 그리고 틈새」,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이혜순·임유경 외), 집문당, 2003 ; 홍인숙, 「송시열: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앞의 책 ; 조혜란, 「17세기 규방과 처산의 문제」,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 분석』, 제3회 한국문화연구원 콜로키움 연구발표문, 2003.6.12. ; 김경미, 「17세기 가부장제의 기획-‘류씨부인’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2004.

3) 줄고,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2003.

4) 김일근, 『언간의 연구』, 건대출판부, 1998(제3판) ;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

활의 일부분으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17세기에는 인선왕후 장씨(1618-1674)를 비롯한 왕실의 인간 자료들과, 편지 교환을 중요한 일과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 남평조씨(1574-1645)의 『병자일기』를 통해⁵⁾ 국문편지가 담았던 구체적인 사연들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비지류·전장류 산문에서 당시 상층여성들의 국문생활을 짐작케 하는 소재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다. 전장문과 비지문은 망자의 일생을 정리하고 그 덕을 현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인 만큼, 편지 쓰기와 같은 일상적인 부분들이 부각되는 경우는 물론 흔하지 않다. 그러나 17세기 상층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몇몇 기록들이 눈에 띈다. 상층여성들의 편지는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교육적·정치적 행위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가족간에 직접 대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지가 곧 사람을 대신했던 정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편지의 일차적 기능은 물론 안부와 소식 전달이다. 안부편지도 단지 상투적인 인사말에 그친 것은 아닌 듯하다. 인선왕후가 어린 손주들의 평범한 행동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적어서 숙명공주에게 보낸 인간에서 보듯,⁶⁾ 편지가 일상의 자질구레한 소식들까지 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낼 때 편지를 동봉하는 일이 흔했는데,⁷⁾ 이로써 물품이 정확하게

간찰』, 태학사, 1998.

5) 이종덕, 「17세기 왕실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전형대·박경신 역주, 『병자일기』, 예전사, 1991.

6) “글월 보고 무스히 이시니 깃거하며 보는 듯 든든 문내 반기노라 어제 부마는 드러오니 비록 보디 못흐나 든든히 기 7이 업서 밤새긔 일긔고 있노라 가삼이는 아바마 와시니 가 보라 하니 우도 아니호고 나가니 즈연이 혀이는가 시브다 니 리고 예엿버 호노라 원샹이는 밤춤도 댜히 자고 기운도 여샹호되 저녁 때면 열 혀여 기춤도 띠이 기고 하다가 저른 휘면 몸도 도로 식고 기춤도 그치고 댜히 이시니 요스의 돌림이 다 그러타 하니 시령으로 그런가 시브다 숙안이는 불의에 나가니 섭섭히기를 었디 7올허리 다만 오라디 아녀 드러올 거시니 기드리고 있노라.”(이종덕, 앞의 논문, 240~241쪽)

7) 『병자일기』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든다. 띄어쓰기·표점은 필자. “십스. 청. 퉁이 금산 가녀러 오니 오라바님 유무 보오니 반갑습기 만” 흡습다. 빅미 단 말 며조 단 말 적두 두 말 진임 혼 말 쓸 두 되 빅지 두 권 고리 키 각 하나 누룩 혼 동 건티 돌 보내여겨시다.”(1637년 4월 14일) ; “초순. 청. (중략) 또 연양덕으로서

전달되었는지 수신자에게 확인시키고 동시에 안부나 기타 사연을 전했을 것이다. 황만의 딸이자 김시민의 처인 창원황씨(1683-1739)는 멀리 떨어져 사는 친정아버지께 수시로 음식과 옷가지를 보내며 편지하여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사는 木川과 서울은 150리가 넘는 먼 거리였는데 황씨 부인이 이를 거르지 않았기에 그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⁸⁾

조선시대 상층남성 문인·학자들의 한문편지가 학문적·정치적 견해를 교환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에 반해, 여성들이 국문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무엇보다 일가친척 간에 안부를 묻고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정보를 주고받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편지도 그러한 실용적 차원을 넘어서, 자손을 가르치는 교육의 한 방편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던 것 같다.

이만부의 조모인 삭녕최씨(1619-1672)는 아들이 외지에서 근무할 때 물고기나 과일을 보내오면 편지를 써서 그 출처를 묻곤 했다고 한다.⁹⁾ 그 편지는 혹여 아들이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는가 염려하고 경계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조태홍의 처 풍산홍씨(1656-1732)는 영조4년 戊申亂 때 아들인 조인신에게 편지하여, 신하된 자가 의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과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당부의 뜻을 전했다.¹⁰⁾ 그 편지들이 남아 있지 않으니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맹만택(1660-1710)의 아내 완산이씨가 13세 아들에게 글씨 연습 좀 하라고 다그치는 등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함직한 이런저런 잔소리를 적은 언간 자료가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¹¹⁾

유무 오니 거문 판터 수이 보내라 하시매 전위하여 사름이 서울로 간다. 거문 판터 금씩 혼니불 하나히 받고 대구 여섯조차 새 무명 자르의 녀허 유무 동봉하여 간다. (하략) (1637년 6월 10일)

- 8) “唐津公寓在木川，去京爲五六舍，平信難續，而淑人至誠探條，每月必屢得老人安否，溫煖甘旨之供，不以路遠而或闕，唐津公每歎曰：‘如吾老且貧者，非金氏女，何以支過？’余亦親聞其語，鄉人至今稱其孝。”(李緯，「淑人昌原黃氏墓誌」，『陶菴集』 Ⅱ 권 45)
- 9) “先府君早顯，嘗在外，致魚果，書詰之曰：‘此物從何出？得無涉非義乎？’教子弟必以義方，禁不得言人過失。”(李萬敷，「祖妣貞敬夫人朔寧崔氏墓誌」，『息山集』 권6)
- 10) “辛壬禍後，彥臣奉夫人，退居窮峽，夫人安之若素。後當戊申亂，莅清州，清賊蔽也。夫人貽書曰：‘臣子義當死。毋以我爲念。’”(李宜顯，「貞夫人豐山洪氏墓誌銘并序」，『陶谷集』 Ⅱ 권16)

이이명의 외조모 전주이씨(1605-1690)는 셋째 사위 김석주에게 외손자 이사명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¹²⁾ 이사명은 이씨 부인의 첫째 사위 이민적의 아들이다. 이사명이 장원급제한 1680년에 김석주는 서인의 우두머리 격이었다. 이씨 부인은 자손들 가운데 일찍 현달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이를 근심했다 하니, 부인이 사위에게 보낸 편지에는 봉당으로 인해 어지러운 정치권 속에서 총명한 외손주의 안위와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담겼을 것이다. 이사명은 기사환국 때 사사되었으니, 노부인의 염려가 공연한 기우만은 아니었다.

한편 나성두의 아내 경주김씨(1614-1693)는 사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자 친척들 가운데 벼슬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인의 ‘편지’를 얻고 싶어 했으나 미망인이 조정의 일에 간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탁을 거절하여 칭송을 받았다. 17세기 노론계의 거두였던 김수항이 바로 그 사위다. 김수항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내외 일가 부녀자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관직을 구하는 자가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¹³⁾ 이로써 권세 있는 집안의 여성이 쓴 편지가 안부를 묻는 이면에서 인사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지겸은 어머니 덕수이씨(1609-1668)의 국문편지가 “언문 중의 문장”이란 칭찬을 들었다는 일화를 전한다. 덕수이씨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편지를 쓴 일이 있는데, 편지의 문장과 뜻이 매우 아름다워 시아버지가 그런 칭찬을 했다고 한다.

○ 전쟁이 끝난 뒤에는 시집을 따라 湖西 新昌의 板坊里로 가서 잠시 살았다. 강화도가 함락될 때 한 부인이 여종 둘만을 데리고 물가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집안 식구가 부족해서 배에 오르게 해주었는데 바로 왕자 仁興君의 부인이었다. 뒤에 부인이 현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목숨을 살려준 은혜

11) 신창명씨 집안에 내려오는 7대의 한글서첩 『子孫寶全』에 실려 있다. 허경진, 『내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쓴다』, 푸른숲, 1999 참조.

12) “子孫有早顯者, 必憂形於色, 深戒滿盈之懼, 外孫李師命, 以勳名, 一歲中暴貴, 夫人貽書於元勳清城公, 勉以君子愛人之德, 蓋其意欲其如韓稷公之於蘇文忠也. 清城以書視客曰: ‘婦人豈有如此見識也.’”(李頤命, 『外王母貞敬夫人李氏墓誌』, 『疎齋集』 권13)

13) “女媀文谷金相國壽恒在銓地久, 親戚求仕進者, 欲得夫人書屬, 輒拒之曰: ‘未亡人何可干預朝政?’ 絕不許. 金相國每歎服曰: ‘內外一家婦女爲人求官者, 不可勝數, 而獨外姑終無一言, 實古今罕事.’”(최석정, 『淑人慶州金氏墓誌銘』, 『明谷集』 권26)

에 감사함을 표하자, 현부인께서 어머니에게 답장을 쓰게 하시고 다시는 서로 편지를 왕래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게 하셨다. 어머니가 즉시 편지를 쓰셨는데 문장과 뜻이 매우 아름다웠다. 할아버지께서 보시고는 감탄하며 “이는 언문 중의 문장이로구나.”라고 하셨다.¹⁴⁾

덕수이씨가 시어머니 현부인을 대신해 쓴 편지는 선조의 아들 인홍군의 부인 여산송씨(1608-1681)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병자호란 때 인홍군 부인이 여종 둘을 데리고 피난하던 중 곤경에 빠진 것을 조지겸 집안의 사람들이 구해준 일이 있었다. 후에 그 부인이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는 뜻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인데, 현부인은 며느리 덕수이씨에게 답장을 대신 쓰게 하여 다시는 서로 편지를 왕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게 하였다. 인홍군은 靜嬪 민씨(1567-1627)의 아들로, 1624년 이괄의 난 때 반군들과의 관련 여부를 의심받은 일이 있고, 1628년 대북파의 잔당이 모반을 기도할 때 왕으로 추대한 仁城君과 동북형제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현부인이 인홍군 부인과의 편지왕래를 짐짓 물리쳐야 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정치적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덕수이씨의 편지가 그러한 미묘한 뜻을 완곡하게 잘 표현했기에 “언문 중의 문장”이란 칭찬을 들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② 상층여성들의 국문생활에서 편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의사 전달이라는 실질적 기능에만 놓이는 것은 아니다. 왕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전통사회의 개인에게 있어서 한 장의 안부편지는 그 의미가 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터이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자식간에 편지란 곧 그리운 부모요, 안쓰러운 자식이다. 어유봉의 할머니 원주원씨(1625-1715) 관련 기록에는 편지에 관한 언급이 빈번한데,¹⁵⁾ 딸인 함중어씨(1667-1704)와도 편지왕래가 잦았던

14) “亂後從舅家，往寓湖西新昌之板坊里，江都奔潰時，有一婦人只率二女奴，呼哭水邊，家人扶而上船，乃王子仁與君夫人也。後夫人致書于玄夫人，謝其生全之恩，玄夫人命先妣修答簡，且陳更不可相通之意，先妣即裁書，辭意甚佳，祖父見而歎賞曰：‘此乃諺文中文章也。’”(趙持謙，『先妣行狀』，『迂齋集』)

15) “夫人既享上壽，而聰明精力，無與少壯，與人言語，聽納了然，手書小牘，不錯一字。(중략) 歲乙未，春秋九十有一，三月某日，卽夫人考通仕公忌也。本宗例以輪回行祭，而夫人當次，實在明年，遂親具祭物，貽書宗姪曰：‘明年此日，人事未可知。及今備送，汝其知之。’其追遠之篤，慮事之深，於此益可見，而竟以是年七月十五日棄世。”

모양이다. 어머니가 딸을 염려하여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 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간접적이거나 대신하는 것이 바로 편지였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죽어 뒤늦게 도착한 어머니의 편지를 전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그 비통함이 더욱 컸다.¹⁶⁾

가족간의 그리움이 비단 부모자식 간에만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간에 그리고 형제자매간에도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편지였다. 남평조씨(1574-1645)가 심양에 끌려간 남편 남이움을 기다리며 “영감의 편지는 못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집 쪽의 일은 잊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한다.”¹⁷⁾ 하고 노심초사하듯, 특히 생사의 경계에서 가족의 편지는 서로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행장이나 묘지명에 비해 작자의 슬픔이 더욱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제문에서 망자의 편지가 종종 거론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덕린(1658-1737)은 아내가 돌림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도 자신을 걱정하며 써 보낸 편지를 뒤늦게 받아보고 비통해 한다.¹⁸⁾ 이형상(1653-1733) 또한 부음보다 늦게 도착한 누님의 편지를 쥐고 오장이 타는 듯 슬픈 울음을 울었다. 누나의 편지에는 이미 영결의 뜻이 있었고, 동생 얼굴을 보지 못하고 먼 길 떠남을 한스러워하는 누나의 필적에 동생은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번 편지에서 누나가 찾던 것갈과 어포를 뒤늦게 영전에 바치는 동생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가. 이씨 부인은 동생 편지가 당도하면 자신의 靈座에 펼쳐 놓으라고 유언했으니,¹⁹⁾ 편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였다.

(魚有鳳, 「祖妣贈貞敬夫人元氏行狀」, 『杞園集』 II, 권25)

16) “小子於三月晦，還自親庭，卽拜姑於此，見我喜甚，言笑移晷，細問祖母飲食之節，寢處之傾，仍及官用之豐殘，音問之疏數，而語眷眷不能已也。(중략) 前月十三日，祖母書來，而卽我姑寢疾之初也。十六日又有書，而姑之疾已革矣。十八日書又至，而時已無致書之所矣。夫以我姑之念親不置，我祖母之思子爲勞，而所以○面目抒情懷者，惟尺素是憑耳。今乃書來而無可傳，便往而無所答，音徽永翳，手滋難親。”(魚有鳳, 「祭季姑恭人魚氏文」, 『杞園集』 II 권27)

17) 『병자일기』, 1637년 6월 11일·12일.

18) “嗚呼! 聞君訃之後一日，酒泉吏來致君兩度書，卽正月初四日十四日書也。書中無他語，惟言兩女子始痘，奔避狀良悉，其末有曰：‘毋驚動，無冒寒輕出。’”(趙德隣, 「祭亡室恭人權氏文」, 『玉川集』 권9)

19) “八日捐世之訃，始到於廿七，至月廿六之書，又承於廿八，眷眷措辭，已有所永訣，

편지를 비롯해 手蹟을 모아 놓은 상자를 무덤에 넣는 관습은 조선시대 상층여성들의 삶에서 편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채무이의 아내 순천김씨나 이응태 아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 다발을 망자와 함께 땅에 묻는 것은 16세기 후반에 이미 관습화되었던 것 같다. 현전 자료는 흔하지 않지만,²⁰⁾ 17세기에든 그런 기록들은 적지 않게 보인다.

○ 일찍이 작은 상자 하나를 봉하고 겹으로 싸서 잘 넣어두시고는 매번 자식들에게 “이것은 내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손수 쓰신 편지이다. 훗날 내 관 속에 묻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생전의 유언을 삼가 받들어 처음으로 그 상자를 열어 보니 편지 6함이 들어 있는데 손수 안애다 구별되게 표시를 하여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4함이외에 1함은 바로 충익공의 필적이었고, 또 1함은 문효공 부인께서 호서에 계시실 때 오고 갔던 편지인데 그 날짜를 살펴보니 바로 어머니께서 8~9세 때였다. 편지의 인사를 살펴보니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실로 소꿉장난이나 하는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 뛰어난 재능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을 이에 볼 수 있다.²¹⁾

이것은 조내양의 딸이며 김일진의 아내인 풍양조씨(1633-1684) 행장의 일부이다. 문효공은 풍양조씨의 조부인 조익이고, 충익공은 외조부인 이시백을 가리킨다. 조씨 부인은 여섯 살에 국문을 깨쳤고, 열 살 이전에는 웬만한 격식을 갖춘 국문편지를 쓸 줄 알았던 것 같다. 8~9세에 사촌 형제들 틈에서 한문전적에 관한 소양도 일정 정도 갖추었다고 한다.²²⁾ 어려서부터 가족 친지들과 주

尤以不得相面爲恨，慟矣慟矣。(중략) 海鮮之欲嘗，戀我之悲鬱，已悉於弼經之書，弟書若到，展之靈座云者，何等至情，而又何遲滯，承訃後乃至乎。執書以泣，五內崩灼。(중략) 況此卵醢魚鱸，是皆前書所下索而未及者，靈必惻怛而舉吾盃矣。嗚呼哀哉。(李衡祥, 『祭長姊文』, 『瓶窩集』 권15)

20) 1989년 경북 현풍의 진주하씨 묘에서 출토된 언간다발은 1602년과 1652년 사이에 광주와 아내 하씨 부인, 그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였다. 백두현, 「17세기 초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생활상-과거, 책, 교육」, 『문헌과 해석』 통권1호, 1997년 가을 참조.

21) “嘗封一小篋，重襲固藏，而每語諸孤曰：‘此吾父母舅姑手札也。他時置吾棺裏可矣。’至是，諸孤敬奉治命。始閱其篋，則簡牘六緘，手識別離，不相混錯。蓋其四緘外一緘，卽忠翼公手蹟也。又其一則文孝公夫人在湖日往覆遺札，而考其年月，則先妣八九歲時也。察其書辭，則懇勸懇懇，實非弄瓦之語也。先妣穎發夙成，於此益見。”(金柱臣, 『先妣行狀』, 『壽谷集』 권7)

고받은 편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부모와 시부모는 물론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편지, 어렸을 때 자기가 쓴 편지들을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관에 함께 넣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다.

조상변의 딸이자 홍처우의 아내인 풍양조씨(1646-1693)도 웅만한 한문학적 소양을 갖추었던 여성이라고 한다. 부모의 편지는 아무리 작은 쪽지라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잘 보관하였으며 자기와 함께 물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²³⁾ 이세백의 딸이자 김희노의 처인 용인이씨(1671-1742)도 양가 부모의 수札을 소중히 보관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그러한 행동은 곧 孝友의 지극함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²⁴⁾

편지는 그 안에 담긴 사연도 중하지만 그 글씨가 사람의 일부로 간주되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다. 여성들의 삶은 대개 부모와 남편과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편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관계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만큼 당시 상층여성들에게 편지다발은 저승길에 가져갈 만한 보물일 수 있다.

③ 편지쓰기는 17세기 상층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일종의 교양이자 필수적인 여공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이의현은 아내 함종어씨(1667-1704)의 부

22) “先妣生而穎脫聰明，六歲，能通諺書，因請學文字，至八九歲間，始博誦羣從兄弟所讀書，甚詳無遺語，曾王父母莫不歎賞，而忠翼公奇愛之尤重，常育于膝下曰：‘此兒恨不爲男子，男子必昌其家。’(중략) 甚愛小學一書，常以紡績餘暇，覽讀不輟。(중략) 至四子等書，亦皆略涉，而凡經傳所載一聽，便耳順心得，恥翫不已。”(金柱臣, 『先妣行狀』, 『壽谷集』 권7)

23) “又好書，羣從兄弟學書，必手箴線在其傍，受讀者有所未達，反能爲之剖析，長者奇其穎慧，欲授以書，先妣以爲非女子務，不當專心，乃晝治女紅，以夜讀小學內訓諸書，略皆上口，兄進士公，高才博學，讀書暇，輒爲先妣論說經史，先妣聞輒心融，無復凝滯，是以於聖賢義理之訓，歷代帝王昏明治亂之迹，靡不通曉，然未嘗以此自矜詡，故人見之悛悛，不覺爲識文字人。(중략) 父母手簡，一一收拾，雖赫蹄之微，不遺，緘而署之曰：‘他日取納我棺中。’其孝敬類此。”(金昌緝, 『淑人豐壤趙氏行狀(代作)』, 『圃陰集』 권6)

24) 이 부인은 이의현의 누이동생으로 권섭의 어머니 용인이씨(1652-1712)와 자매지간이다. “夫人雖未得熟習書史，而鑑識絕人，義理是非，論辨甚皙，(중략) 性篤孝友，有終身之慕，先考妣舅姑手札，藏弄箱篋。”(李宜顯, 『季妹貞夫人墓誌』, 『陶谷集』 II 권18)

덕을 칭송하면서 筆札과 針線을 나란히 거론하고 있다.²⁵⁾ 조금 후대이긴 하지만 이상중의 아내인 정씨(1711-1730)의 경우도 아버지 정오규가 딸의 행장을 들고 와서 박필주에게 묘표를 부탁하며 한 말 가운데 봉제사, 접빈객, 침선 등 여공에 능했다는 칭송의 맥락에서 편지쓰기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²⁶⁾

편지쓰기가 여성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교양이나 여공의 하나였던 만큼, 당시 상층여성들은 빠르면 8~9세경에는 간단한 국문편지를 직접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던 모양이다. 김수항의 딸이자 이섭의 아내인 안동김씨(1665-1680)는 8세에 여공을 배워 막힘이 없었고 어머니를 대신해 편지를 쓰면 어머니 뜻에 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했다.²⁷⁾ 김창즙의 딸이자 이망지의 아내인 안동김씨(1680-1700)도 6세에 언문을 깨우쳤고 글씨를 단정하게 잘 썼으며, 8세에 이미 할머니 대신 편지를 곧잘 써서 칭찬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할머니 대신 어린 여종에게 언문을 가르쳤는데 며칠만에 그 효과가 있어 은비녀를 선물로 받았다는 일화가 전한다.²⁸⁾ 앞서 언급했던, 조지겸의 어머니 덕수이씨가 ‘언문 중의 문장’이란 칭찬을 들었던 편지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쓴 것이었다.

조선시대 양반계층에게 있어서 편지쓰기란 편지가 담는 내용적 측면 뿐 아니라, 한문이건 국문이건 그 글씨 자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상층여성들에게도 편지쓰기가 필수교양의 하나였다 할 때, 글씨를 반듯하게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을 것이다. 신사임당이 그림과 글씨에 뛰어났음은 물론이고, 장흥효의 딸 안동장씨(1598-1680)도 글씨를 잘 썼던 것으로 유명하다. 장씨 부인의 적벽부채를 본 정윤목은 “필체가 호방하고 굳세어 조선 사람의 서법과

25) “聰慧夙悟，絕異凡兒，筆札針線，精美神速，不勞而自就，見者莫不驚異之。”(李宜顯，『亡室贈貞敬夫人咸從魚氏行狀』，『陶谷集』Ⅱ 권24)

26) “女自幼不妄言笑，威儀動止，能若有成法，識事理 敦孝恭，其生質之美，既得之天賦，而凡女子所事，皆不待母教而能之，相其母門內之治。自祭祀賓客，以至於筆札酬應衣裳裁成，率任之而無怠。蓋未笄耳德音容工已無不備，殆庶乎程孝女之倫也。”(朴弼周，『孺人鄭氏墓表』，『黎湖集』)

27) “八歲，學習女紅，灑然通曉，代母氏酬酢書札，無不稱意。”(宋時烈，『孺人金氏墓誌銘并序』，『宋子大典』 권187)

28) “六歲，能通諺文，書字端整。八歲，已能爲先妣，視出內代筆札，先妣亟稱之。先妣欲親近小婢之通諺文，女即教之，開告有方，專勤不置，遂數日而成就，先妣甚喜而奇之，爲製銀釵而賞焉。(중략) 女思慮通慧，識度過人，雖以勤執女紅，不得傳於學書，而略通其義，稍得暇，又輒潛心焉。”(金昌緝，『亡女行狀』，『圃陰集』 권6)

같지 않다. 중국 사람의 필적이 아닌가?”라고 칭찬한 바 있다.²⁹⁾

○ 성품이 부지런하여 비록 연로해지셨을 때에도 여전히 손에서 길쌈 도구를 놓지 않으셨다. 주고받는 혁제와 사람들에게 주는 상찬 명주실과 삼실은 반드시 손수 글씨를 쓰고 봉하였는데, 자획이 반듯하고 바르며 하나도 비뚤거나 기운 것이 없으셨다. 때로는 이로써 하루를 보내고도 지친 기색이 없으셨다. 머느리들이 고단하시다고 말씀드리면 문득 좋아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하지 않으면, 이는 다른 사람을 정성껏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³⁰⁾

김홍진의 아내 한산이씨(1626-1700)도 서예에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이씨 부인은 남에게 물품을 보낼 때 동봉하는 간단한 편지 하나에도 정성을 들여 글씨를 썼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하루 종일 글씨연습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모양이다. 이씨 부인은 그것이 편지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의와 정성이란 말은 글씨연습에 몰두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명분이기도 했을 것이다.

편지쓰기는 상층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일상 가운데 하나였고 글씨를 반듯하게 잘 쓰는 것 또한 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너무 넘쳐서는 물론 안 되었다.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 같은 것은 모두 여자가 할 일로 마땅하지 않다”³¹⁾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관념이었기에, 서예에 특별한 관심이나 재능이 있어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17세기 상층여성들의 일반적인 행동방식이다. 박세당의 손녀 반남박씨(1675-1693)도 특별히 글씨를 잘 썼던 모양인데, 서예를 독려한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이를 그만두었다.³²⁾ 그것은 이 시기 상층여성들이 체화한 보편적인 자기검열의

29) “於詩語字畫，亦不待學習而能，清風子鄭公允穆，嘗見其所書赤壁賦體驚曰：‘筆勢豪勁，不類東人書法，莫中國人手蹟否。’”(李玄逸，『先妣贈貞夫人張氏行實記』，『葛庵集』 권27)

30) “性勤，雖篤老之年，猶手不去紡績之具，以至赫號酬答，箱饌絲麻之遺人，必手書封緘，血字畫方正，一無欹斜，或以是竟日而無倦色。婦女輩以勞神爲言，則輒不悅曰：‘吾非勉而爲此，且不如是，是待人不以誠也。’”(金柱臣，『伯母淑人韓山李氏墓誌』，『壽谷集』 권5)

31) “稍長及笄，以爲作詩若書字，皆非女子所宜，遂絕不爲，故佳章妙蹟不多傳。”(李玄逸，『先妣贈貞夫人張氏行實記』，『葛庵集』 권27)

결과였다 할 것이다.³³⁾

Ⅲ. 비밀상적 글쓰기 : 유서와 제문·행록

편지가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사건을 반영하는 일상적 글쓰기라면, 죽음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비밀상적이다. 가족 친지의 죽음에 임하여 짓게 되는 제문, 행장 등이 그 대표가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유서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유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나 기록이 많지 않은 까닭에 그동안 논의된 것이 별반 없다. 조선시대에 유언을 글로써 남기는 관습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궁중에서는 왕이나 비빈이 임종시에 남긴 유언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 같다. 1545년에 인성왕후가 인종의 임종 때 들은 遺敎를 국문으로 옮겨서 조정 신료들에게 내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인성왕후는 인종의 평소 언행과 덕을 알려 달라는 영의정 尹仁鏡 등의 청에 따라 諺文行錄을 지어서 大行王의 行狀修撰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다.³⁴⁾

사가에서도 나이든 부모가 자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글로써 남기는 일이 드물지 않았던 것 같다. 최후윤의 딸이자 김당의 아내인 완산최씨(1647-1714)가 병이 깊어지자 遺訓을 불러주며 받아 적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⁵⁾ 여진익의 아내인 원주원씨(1625-1715)는 죽기 전에 이미 유서를 써 두었다. 90세를 넘게 살았으니 유서를 미리 준비했음직하다.

32) “父善書，及被疾數年，無所寓意，試女書操筆，而筆勢壯偉，不類出小弱女子手，父大奇之，未久而父沒，遂廢不肯爲。”(朴世堂, 『李德孚妻墓誌銘』, 『西溪集』 권9)

33) 전통사회의 여성어문생활에서 남성의 통제와 여성의 자기검열이 작동해 왔는가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즐고,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14~122쪽 참조.

34) 이에 관해서는 즐고,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405~411쪽 참조

35) “淑人寢疾，疾幾殊，神識猶不爽，呼筆書遺誡，析著田僮，裁定祭品，屬後事無遺。”(尹鳳朝, 『外姑淑人崔氏行狀』, 『圃巖集』)

○ 초상에 빠진 이를 담아 놓은 주머니를 찾으러 갔다가 유서 한 장을 얻었다. “내 제사에는 떡 한 말과 과일 네 가지, 탕 세 가지, 干南 두 그릇만 놓아라.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해도 이보다 더하지는 말아라. 유밀과는 쓰지 마라.” 또 “너희들 모두 나이 칠십이다. 각자 몸을 삼가고 지켜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또 “비록 차려 놓아도 알지 못하고, 귀신이 흠향하는 지도 알지 못한다. 손주들은 일체 상에 술을 따르지 말아라. 여기에 쓴 것은 한결같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했다. 손으로 쓴 글씨가 자세하고 말의 뜻이 간절했다. 받들고 읽으니 슬픔에 목이 맨다. 무슨 말을 더하리오.³⁶⁾

원씨 부인이 남긴 유서에는 자신의 제사를 간소하게 하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자식들이 초상을 치르며 몸이 상하지 않기 바란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산 자는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떠나는 사람은 남아 있는 사람을 걱정한다. 김경림의 누이金子念(1698-1715)이 죽기에 앞서 아버지께 영결을 고하며 쓴 <告訣書>는 한문으로 된 것인데, 여기서도 연로한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며 크게 상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³⁷⁾ 이로써 당시 국문으로 된 유서의 모습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문으로 써어진 애도문이 학계에 보고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른 시기의 자료인 <晦齋先生 한글제문>은 이언적이 어머니 손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가사인데, 1548년에 한문제문과 함께 이언적이 직접 지은 것이라는 견해와 후대에 어느 후손에 의해 국문가사로 번안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³⁸⁾ 국문제문과 한문제문의 관계, 국문제문을 가사체로 쓰기 시작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18세기 중후반에 윤숙의 <정경부인이씨제문>이나 박남수의 <을미구월제문><을미스월지동포천상스제문>

36) “初喪，搜出落齒所盛囊，得遺書一紙。有曰：‘余之祭祀，只具餅一斗，實果四色，湯三色，干南二器，雖有財力無加，油密果勿用。’又曰：‘汝等皆爲七十，慎護其身，必須扶持是望。’又曰：‘雖有設無所知，亦未知其歆饗，諸孫等切勿爲床致奠。如是書之，一從吾所願。’手澤森然，辭旨丁寧，奉讀摧咽，尙何言哉。”(魚有鳳, 『祖妣贈貞敬夫人元氏行狀』, 『杞園集』 II 권25)

37)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 산문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42~43쪽.

38) 국문제문의 자료와 연구현황에 관해서는 김동규, 『제문가사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유경숙, 『조선조 여성제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참조.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성들이 국문으로 제문을 짓기도 했다면 같은 시기에 여성들이 국문제문을 지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현재 남아 있는 규방가사 가운데 제문가사로 부를 수 있는 일군의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늦어도 조선후기에 상층여성들 사이에 국문으로 제문을 짓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17세기의 경우, 이단하의 딸 덕수이씨(1656-1679)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아마도 국문으로 쓴 제문 또는 애사였을 것이다.³⁹⁾ 김동현의 아내인 연안이씨(1692-1719)가 죽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요절한 며느리를 위해 애사를 지어 죽음을 위로했는데,⁴⁰⁾ 역시 국문으로 짓지 않았던가 한다.

인성왕후가 인종의 행록을 국문으로 지어 대행왕의 행장수찬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실록의 기록에 근거할 때, 그와 비슷한 사례로 가장 앞선 것은 1495년에 성종비 정현왕후(1462~1530)가 성종의 행장수찬을 위해 諺書를 내렸다는 기록이다.⁴¹⁾ 그 언서의 내용은 주로 성종의 지극한 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17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1623년에 인목왕후는 영창대군의 행장을 국문으로 지어서 내렸고,⁴²⁾ 1674년에 명성왕후는 현종의 행록을 언서로 지어 숙종이 김만기 등에게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게 하였다.⁴³⁾ 궁중에서는 왕이 죽었을 때 왕비가 대행왕의 평소 언행과 덕을 드러내는 언행록을 국문으로 지어서 왕의 행장수찬에 일종의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39) “女姿相端秀，氣度婉婉，內外親黨，咸謂門中無可與倫，自幼及長，未嘗被余一言之責，然余居常病昏，不省兒女細事，嫁遣益疎闊，未詳其事行如何，及歿問其母曰；‘女過十歲，女工已精，吾病，代檢事如成人，性又貞潔，見非義，若將浼焉。歸夫家，益殫孝敬，夙夜不少懈，舅姑甚宜之，憐逾己女，此非吾言，卽其姑與吾書悼惜之辭。’”(李端夏，「亡女申氏婦墓誌」，『畏齋集』 권8)

40) “恭人之幼，余固撫愛之矣。及其沒也，深致悼惜于良齋，良齋徒隕涕耳。乃其續述懿懿，出自台甫之手，至舉其慈堂中夫人哀誄，則有刺骨知己之語，令人感涕，亦足警世之悍嚚焉。夫才不才，亦各言，固父母之常情也。然而慈愛攸蔽，往往以不才爲才者有矣。故以閨閣言之，得私家滿室之譽，不如得舅姑一可字。”(金昌翁，「恭人李氏墓誌銘」，『三淵集』Ⅱ 拾遺 권25)

41) “王大妃，下諺書于行狀修撰，以文譯之若曰；(하략)”(연산군1년 1월 2일(병술))

42) 인조1년 10월 29일(병술)

43) 숙종즉위년 9월 8일(기사)

보편적인 관례였던 것 같다.

일반 사가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간혹 상층여성이 자기 어머니의 遺事를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황일호의 아내인 전주이씨(1605-1690)가 수를 다하고 죽었을 때, 이씨 부인의 장녀는 어머니의 덕을 기리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후손들이 알지 못할 것을 슬퍼하여 어머니의 언행록을 짓고 아들에게는 묘지를 짓도록 명했다. 그 딸이 이민적의 아내이자 이이명의 어머니인 창원황씨다. 이이명은 어머니가 지은 언행록과 외가 친척들의 말에 근거하여 묘지를 짓는다고 경위를 밝혔다.⁴⁴⁾ 황씨 부인이 지은 언행록은 아마도 국문이었을 것이다.

이덕수의 어머니 청송심씨(1649-1727)가 지은 어머니 한산이씨의 유사는 본래 한문으로 쓴 것인 듯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심씨 부인이 생전에 써 두었던 어머니 유사를 아들 이덕수는 어머니 사후에 유물을 정리하면서 처음 보았고,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유사를 남긴 뜻을 잇기 위해 미완인 유사를 약간 손보아 완성시켰다.⁴⁵⁾ 외할머니 한산이씨는 이기조(1595-1653)의 딸이며 심약한의 아내로, 일찍 남편을 여의고 1남1녀를 키웠다. 심씨 부인이 지은 어머니 유사는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씨 부인은 어머니가 부모님 생신 때마다 맛난 음식과 옷 두 벌을 지어 드렸다는 것, 외아들인 심유가 어린 시절 공부를 게을리 하다가 이부인의 가르침으로 공부에 정진하게 되었던 일화, 文學을 좋아하여 자손들 가운데 문학에 능한 자가 나왔으면 하는 소원을 가졌던 것, 부모의 상에 임하여 정성을 다하였던 일화가 그 주요 내용이다.⁴⁶⁾

44) “嗚呼! 我外王母貞敬夫人全州李氏以壽終, 而舅氏兄弟, 俱已先物, 我先妣悲夫人德美之莫述, 懼無以垂範後昆, 乃手錄平日言行, 以遺諸侄, 仍命頤命纂次文字, 外氏諸兄弟亦強之, 頤命自以素固陋, 言出卑幼, 又難傳信, 承命周章, 久未敢成, 今者獲戾于神, 奄及大故, 竊恐因循退托, 永負遺意, 肆敢据先妣所錄及諸兄弟族黨之言, 謹叙幽堂之誌.”(李頤命, 『外王母貞敬夫人李氏墓誌』, 『疎齋集』 권13)

45) “先妣病既革, 頤女孫尹氏婦曰: ‘吾有小方底在某所, 宜謹藏勿失.’ 先妣既沒, 不肖取而閱之, 中有二小紙, 其一則區處家事者, 其一則乃手錄外王母遺事數條也. 不肖覽未訖, 泣涕橫流, 紙爲之濕. 竊計先妣之所以爲此者, 豈偶有所觸感而漫錄, 以示子孫歟? 抑欲論次遺事, 以備後考, 而病情猝亂, 未及卒成歟? 意旨所存, 蓋有不可得而知者矣. 然人子之於父母, 雖等閑遺跡, 亦必欲收藏勿失, 況記先懿者哉. 茲敢就本文, 畧加刪潤以藏.”(李德壽, 『附先妣手錄外王母遺事』, 『西堂私載』 권9)

이덕수의 아들이 초하고 이덕수가 완성한 심씨 부인의 행록에 따르면, 이씨 부인은 어린 딸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침선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 아들과 나란히 직접 한문을 가르쳤다고 한다.⁴⁷⁾ 그런 교육의 영향으로, 심씨 부인의 한문학적 소양은 당시 여성들의 평균 이상이었던 것 같다.⁴⁸⁾ 때문에 심씨 부인이 어머니의 유사를 한문으로 지을 수 있었을 터이다.

18-19세기에 가면 임윤지당, 신부용, 황정정당, 강정일당, 김삼의당 등 여성이 한문으로 제문이나 유사를 지은 사례가 좀더 눈에 띈다.⁴⁹⁾ 물론 남성문인들이 남긴 전장문·비지문·애제문에 비하면 그 수는 대단히 적다. 조선시대에 상층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친지의 죽음에 임한 한문 글쓰기가 보편적인 것이었고 현재까지 전하는 자료의 수도 상당하다. 그런 글들에서 여성은 서술의 대상일 뿐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을 기록하는 주체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사례를 통해서나마, 17세기 상층여성들이 국문으로 혹 드물게는 한문으로, 죽음에 임하는 비밀상적 글쓰기의 주체이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심씨 부인이 지은 어머니 유사의 전문은 李德壽, 『附先妣手錄外王母遺事』, 『西堂私載』 권9에 실려 있다.

47) “先祖妣生而清弱善病, 母李夫人憂愛深, 不離懷抱, 稍長, 與內弟趙夫人, 姨兄鄭夫人, 同嬉遊, 趙·鄭兩夫人, 或從事針績之工, 先祖妣亦欲與之同學, 則李夫人輒止之曰: ‘兒甚弱, 宜自保護, 無至生病, 若壯而完實, 則本性明慧, 雖吾不教汝, 汝當自解, 吾則憂汝病弱, 不憂汝不學女工耳. 趙夫人, 李大諫世勉夫人. 鄭夫人, 閔判書鎮周夫人. 李夫人聰明穎睿, 通書史, 達於義理, 雖甚愛先祖妣, 而亦隨事訓誨, 取少微通鑑小學等書, 排日課讀, 夜則令誦其所讀書, 又指乾象, 使知星辰躔次, 以及古來哲婦賢媛, 是非得失, 靡不勤勤指導, 先祖妣能一聞即記, 終身不忘, 所以明見博識, 爲一家之所敬服. 李夫人早寡當家, 膝下只有應教公及先祖妣, 應教公所學, 先祖妣亦皆旁學.”(李德壽, 『先妣行錄』, 『西堂私載』 권12)

48) “先祖妣性端方, 寡言笑, 文史詩賦, 多所通曉, 而韜能靜嘿, 外若不知, 聰明絕人, 少時所經眼, 皆能暗誦而對人酬酢, 如甚遲鈍, 故雖一家婦女, 只服其恬和安靜之德而已. 亦不知其聰明穎達, 而每當夜深人靜時, 山培或時與諸妹誦唐詩三大作及滕王閣赤壁賦之屬, 有時礙滯, 則先祖妣必提其礙處, 使之記悟而已, 亦不肯盡誦其全篇.”(李德壽, 『先妣行錄』, 『西堂私載』 권12)

49) 이혜순·정하영, 앞의 책.

IV. 규범서·역사서의 읽기와 번역

17세기 상층여성의 어문생활에 관한 정보들 가운데 전장류·비지류 산문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글읽기 과정이다. 『열녀전』과 『소학』이 가장 기본이고 『여계』나 『내훈』 같은 여성 규범서가 첨가되기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상 여성의 한문학적 소양이 좀더 부각되는 경우에는 『논어』, 『맹자』, 『효경』, 『상서』, 『시경』, 『주자강목』 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대개는 ‘經史에 대강 통달했다’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에게 그런 글읽기가 어느 정도 허용된 이유가 상층신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양을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상층여성들이 접했던 규범서와 역사서, 유가의 경전들이 모두 ‘한문’ 전적이었다는 보장은 없다. 조선후기에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한문 학습서가 적지 않았는데, 그런 한문 학습서가 정작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된 경우도 많았으며, 후대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한다.⁵⁰⁾ 더구나 비지문·전장문에서 대상 여성의 글읽기에 대해 언급할 때, 그 문자수단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기본적인 한문전적의 제목이 거론된다고 해도 그 여성들의 글읽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재구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간혹 여성들이 기본적인 여성 규범서와 역사서를 국문으로 번역 또는 필사했다는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끈다.

○ 인선왕후가 빈궁에 있을 때 문정공에게 명하여 『열녀전』을 한글로 번역해 올리라고 명하였다. 문정공이 숙인으로 하여금 그 초본을 쓰게 해서 이것으로 올렸는데, 숙인은 마음속으로 보며 사모하는 바가 있었다.⁵¹⁾

○ 더욱이 기억력이 좋아 한 번 듣거나 본 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 손수 한글로 베낀 『열녀전』은 아침저녁으로 보았으며, 『사략』을 번역하여 어린아이에게 주었는데 잘못된 곳이 하나도 없었다.⁵²⁾

50) 이종목, 「조선후기 한시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51) “仁宣王后在嬪宮，命文正公諺釋列女傳以進，文正公使淑人書其草本，仍以與之，淑人潛心循覽，有所興慕。”(金壽增, 『亡室淑人曹氏行狀』, 『谷雲集』 권6)

이것은 김수증의 아내인 창녕조씨(1627-1687)와 박세채의 조카 연안이씨(1659-1687)에 관한 기사이다. 이들처럼 김수항의 외동딸 안동김씨(1665-1680)도 열 살 때 아버지가 사다준 『열녀전』을 번역한다고 아침저녁으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⁵³⁾ 창녕조씨에게 『열녀전』을 번역하도록 시킨 문정공은 조씨 부인의 시할아버지인 김상헌이다. 김상헌에게 그 명을 내린 사람은 인선 왕후로, 공주들과 주고받은 언간 70편을 남긴 바로 그 사람이다. 박세채의 조카인 연안이씨는 『열녀전』을 국문으로 베끼고 『사략』도 번역하였다 하니, 당시 여성들이 국문으로 번역한 한문전적이 반드시 여성 규범서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님을 짐작케 한다.

이들이 수행한 ‘번역’이 단순 필사였는지, 얼마나 본격적인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사례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규범서나 역사서의 경우는 그 번역이 일반 사가에서 여성들에 의해 사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여성들의 글읽기가 읽기와 쓰기의 이분법에 의해 확연히 나눌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 한문과 국문 그리고 구술과 기록의 경계마저 넘나드는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김수항의 장모 경주김씨(1614-1693)는 시아버지인 나만갑이 유배지에서 나라 근심에 울울불락할 때 ‘諺翻古史’를 구해서 날마다 읽어 드렸다고 한다. 옛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문득 영민함을 발하여,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더라면 무엇으로 영혜에 떠도는 회포를 풀어 보내겠는가?” 하고 시부모가 감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⁴⁾ 상층남성이 어머니를 위해 국문소설을 짓거나 읽어 드렸다는 기록은 곧잘 접할 수 있었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언변고사를 읽었다는 기록은 흔하지 않다. 반드시 그런 사실이 드물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김씨 부인의 경우처럼 기록으로 남을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52) “尤能強記，其有一經耳目者，終身不忘，以諺書自寫列女傳，朝夕觀覽，又以翻譯史略授稚兒，無少錯誤。”(朴世采, 『孺人李氏行錄』, 『南溪集』 外卷14)

53) “十歲，公購得列女傳以授之，以爲得之之晚，翻以此云，夙夜玩繹焉。”(宋時烈, 『孺人金氏墓誌銘并序』, 『宋子大典』 권187)

54) “鷗浦公性忼慨，病困，猶憂世切之，益鬱鬱憤懣，夫人爲求得諺翻古史，日在傍誦說，以慰其意，時有所商論古人，輒復穎發過人，二尊人每欣然曰：‘微吾婦，何以遣嶺海羈抱。’”(崔錫鼎, 『淑人慶州金氏墓誌銘』, 『明谷集』 권26)

김씨 부인이 시아버지를 위해 읽어 드렸다는 언변고사는 일반 역사서의 단순 번역서가 아니라 연의류에 속하는 고담책이었을 수도 있다. 17세기 상층여성들이 소설을 열심히 필사하며 돌려 보았던 사정은 권섭의 할머니 함평이씨(1622-1663)와 어머니 용인이씨(1652-1712)를 비롯한 안동권씨 집안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과 동시대 사람인 김씨 부인이 시아버지의 율적인 심사를 위로하기 위해 읽어 드렸던 언변고사가 소설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권섭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소설독서에 관한 사실은 이들의 전장문이나 비지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삼국지>를 베끼고 소중하게 보관했던 함평이씨의 행장에는 “뛰어나게 총명하여 문자를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깨우쳐 고급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고 그 대의를 통달하였다”는 언술이 이씨 부인의 어문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의 전부다. <소현성록>을 비롯해 많은 국문소설을 필사하여 자식들에게 남겨준 용인이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행장을 보면, 식견이 높고 기억력이 뛰어났다는 칭찬, 諺冊子를 등서했는데 글씨가 구슬을 꿰 듯하여 인선왕후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일화가 전부이다.⁵⁵⁾ 17세기 상층여성들의 소설독서 현상은 이들의 전장문과 비지문에서 아직은 중요한 정보로서 채택되기 어려웠다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17세기 남성문인·학자들의 개인문집에서 동시대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정보들을 수합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작가의 수는 108명으로, 태어난 해가 1600년~1680년인 인물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의 문집 가운데 여성 대상의 전장문은 90여 편, 비지문은 350여 편이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편일률적인 행장과 묘지문 사이사이에서 당시 상층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크고 작은 정보들을 얻었고, 이로써 17세기 상층여성들이 국

55) 자세한 내용은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편, 집문당, 1995 참조.

문을 통해 영위했던 생활의 면면들이 보다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정보는 편지쓰기에 관한 것으로, 17세기 상층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편지는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교육적·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 있어 편지는 곧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었기에, 그 정서적 기능 또한 매우 컸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서를 남기거나 가족의 죽음에 임하여 제문이나 애사를 지어 슬픔을 토로하는 일도 17세기 상층여성들의 국문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가족 친지 가운데 한 여성이 죽었을 때 다른 여성이 국문으로 언행록이나 행장을 짓기도 했음은 이이명의 어머니 창원황씨와 이덕수의 어머니 청송심씨의 예에서 볼 수 있었다. 전통사회의 여성어문생활에 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 정보들이 한국여성어문생활사를 재구하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여성의 국문생활이 행장이나 묘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로 채택되는 문맥을 살펴볼 때, 그러한 사실들이 대상 여성의 부덕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장과 묘지문은 망자의 일생을 정리하고 그 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통사회 여성의 삶에서 비본질적이라고 간주되었던 문자생활, 특히 국문으로 영위되는 일상의 영역이 이런 종류의 글에서 부각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여성의 국문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드물게나마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보들이 대상 여성의 부덕의 일면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경우였다. 예컨대 부모와 주고받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거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언행을 국문으로 기록했다는 정보는 대상 여성의 효성을 드러내는 유의미한 수단일 수 있었다.

‘사실의 기록’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장문과 비지문은 망자의 일생을 정리하고 그 덕을 현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이란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여성어문생활에 관한 좀 더 긴요한 정보들을 수합하기 위해서는 언행록이나 각종 일기 등 동시대 각종 문헌들까지 검토 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문생활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국문생활에 대한 이해도 온전해질 것이다.

주제어 : 어문생활사, 상층여성, 국문, 글읽기, 글쓰기

참고문헌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한국문집총간』 101권~197권.
- 이혜순·정하영 역편, 『한국고전여성문학의 세계: 산문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전형태·박경신 역주, 『병자일기』, 예전사, 1991.
-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 강혜선, 『조선후기 女性墓主 墓誌銘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 김경미, 『17세기 가부장제의 기획-‘류씨부인’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김동규, 『제문가사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미란, 『<여성傳記>의 서술의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 김일근, 『연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제3판).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한국고전문학회편), 집문당, 1995.
- 백두현, 『17세기 초의 한글편지에 나타난 생활상-과거, 책, 교육』, 『문헌과해석』 통권1호, 1997 가을.
- 유경숙, 『조선조 여성제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경하,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종덕, 『17세기 왕실인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종묵, 『조선시대 한시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이혜순·임유경 외,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 집문당, 2003.

조혜란, 「17세기 규방과 치산의 문제」,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 분석』, 제3회 한국문화연구원 콜로키움 연구발표문, 2003.6.12.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Abstract>

Several Examples of Women's Korean Literary Lives in the 17th Century

Lee, Kyung-Ha

Scarcity of materials and historical records is one of big problems in studies of women's classical literary history. This is why we need to turn a view point from 'literary history' to 'history of oral and literary lives.' The concept of 'oral and literary lives' is substituted for 'literature' which doesn't suit the purpose of explaining women's literary history. It could include not only all kinds of written materials but also oral phenomena related to women's activity, not only professional artistic works but also ordinary writing and speaking, not only creative productive activity but also literary consumption like reading books.

In this viewpoint, *Haengjang*(行狀), records of a dead person's life, and *Myojimyong*(墓誌銘), a kind of epitaphs, are very important sources for studies of women's literary history. Anthologies of men writers in the upper class, who used to be social leaders as scholars or statesmen, contain many pieces of *Haengjang* and *Myojimyong* for their mother, wives, daughters and so on. I've tried to find historical records about women's literary history in them and this monography is a report of the result, especially about women's reading and writing in *Hangeul*.

In the result, several new examples of women's Korean literary lives in the 17th century are found in the about 440 pieces of writings of 108 men writers. Because literary lives in *Hangeul* were parts of what we called daily lives, it is no wonder writers didn't refer to women's Korean literary lives so much. In spite of such limits, the materials were found to say about

lots of informations about women's Korean literary history in the 17th century, which contained women's letters, their own wills, funeral orations, biographical writings for their mother, and their reading and translation. Writing Korean women's oral and literary history could be possible someday through building up various and many informations like these.

Key Words : History of oral and literary lives, women in the upper class,
Hangeul, reading, writing